'주거복지 · 도시재생' 경험 공유한다

'주거복지 컨퍼런스' 오는 11월9~10일 전주 개최… 총 12개 세션에서 36편 발표 · 논의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주거복지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논의 · 학술행사인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9일과 10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한민국 주거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유치했다.

앞서, 시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을 뻔 한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에 가장 앞장서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에도 착수했다.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학계와 현장 활동가, 공공기관 관계자,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거 취약계층과 위기 집단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총 12개 세션에서 36편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지며, 대주제 기조발제는 변창흠 SH서울도시공사 사장이 맡는다.

시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민간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슈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은 "주거복지컨퍼런스는 한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주제를 선정해 민.관.공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2009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주를 주거복지 도시이자 사람의 도시로 알리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 을지연습 사전교육

전주시는 4일 시청강당에서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을지연습 대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교육에서 이달 중 실시될 을지연습의 전반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확인.점검했다.

또한, 연습기관 중 훈련 준비태세 확립 및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점검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훈련 준비 및 시행으로 어떤 상황에도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상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는 지난 4일 시청강당에서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을지연습 대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재외동포 전통문화 교육기지화 희망 봤다

전주시,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수료식 개최

전주시가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전주에 전 세계 176개국에 거주하는 약 720만명의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재외동포 교육기지를 세워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역사, 문화 교육 및 정체성 함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주시는 4일 재외동포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전통문화연수 수료식을 끝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약 3주 동안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2017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한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한국전통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고유의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여기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청소년 프로그램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11개국의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34명이 참가했으며, 교육자 프로그램은 지난 26일부터 8월 4일까지 21개국의 한글학교 교사 3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글교육과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전주와 한국역사문화, 풍물.탈춤.민요 교육, 한지 만들기 체험 등 모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

시는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치러내면서, 전주에 재외동포 교육기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전주가 보유한 풍부한 전통문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문화특별시 지정 당위성도 어필했다. /안재용 기자

식 · 약용곤충 활용 미래식량 개발 착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 개발사업' 선정

전주시가 굼벵이 등 식.약용곤충과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미래식량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4년간간 총 13억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식.약용곤충/발효미생물 복합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간 기능 개선 물질의 발굴 및 식품 산업화'로, 식.약용곤충과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복합소재의 신제품개발과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곤충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곤충자원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국가 TOP5 융복합 프로젝트로서 세계 시장규모가 2020년에 38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세계미래학회가 제시한 20년 후 유망한 10대 미래 기술에도 곤충 유래 신약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한방에서는 인체에 필요한 각종 단백질과 영양소를 만들고 해로운 여러 가지 물질을 해독하는 간을 보호하는 소재로서 굼벵이와 같은 약용곤충을 이용한다. 동의보감에도 굼벵이가 간질병에 좋은 약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발효미생물도 최근 학계에 간 기능 개선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 연구원은 이번 식.약용곤충/발효미생물 복합소재 연구 및 산업화가 향후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강열 원장은 "농생명 곤충소재와 발효미생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 산업인 곤충산업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과학적 입증자료 구축 및 제품개발을 통한 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미래 신성장산업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덕진구, 관내 장례식장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 덕진구는 관내 장례식장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일부터 7일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례식장 안치실.염습실의 위생관리 상태를 비롯해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 적정 게시 여부, 시설.설비.안전기준과 시신의 적법한 관리여부는 물론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덕진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성희롱 혐의 해임 공무원 VS 익산시청, 법정 공방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전북 익산시로부터 해임당한 전직 공무원과 익산시의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인격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전 사무관 A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시는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익산시는 항소 이유에 대해 A씨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고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과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해임수준의 비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계 양정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으나 성희롱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그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강한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일삼은 점을 고려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는 아울러 추가 피해자를 파악해 비위사실을 조사한 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해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의 필요성이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월 A씨가 인격모독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전북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3월 그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A 과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